

전주언 청장 당선무효형...술렁이는 서구청

행정공백 장기화...직원들 망연자실

9월까지 사퇴면 10월 27일 단체장 재선거 간부 2명 직위해제·30여명은 징계위 회부

법원이 7일 전주언(62)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함에 따라 장기적인 행정공백 사태를 빚게 됐다. 특히 서구청 안팎에선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 등 핵심 간부들까지 대거 사법처리됨에 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 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구청 차질 불가피=법원의 이날 판결로 서구청 안팎에선 구정의 파행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선거'와 '인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 청장이 두 사건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지난달 17일 전 청장이 검찰에 구속기소되면서 시작된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가 적어도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 의사국장, 동장 등 관련 공무원이 대거 사법처리됨에 따라 행정적인 징계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선 전 구청장이 항소와 상소심에서도 구청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점치면서 재선거 입지자들을 자전타전 거론하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 청장이 9월 30일 전까지 사퇴할 경우 10월 27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다만, 전 청장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선고결과를 지켜본다면 내년 4월

이후에야 선거를 치를 수 있어 장기적인 구정 공백이 우려된다.

◇서구청 간부 2명 직위해제...공직사회 요동=이날 전 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에 이따와 오씨는 복직됐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와 손모(56·5급)씨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위가 해제됨에 따라 직원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서구청 소속 공무원 김모(39)씨는 "다른 구청들은 구청장 취임과 함께 새롭게 민선 5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민선 5

기 시작 분위기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서구청 공무원 역시 "지난달 고위직 공무원 3명이 직위해제 된 데 이어 최근 관선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30여명이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청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구청은 서구청 소속 공무원 중 관선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30여명을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감봉과 승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어서 과장이 예상된다.

김모씨는 "다른 구청들은 구청장 취임과 함께 새롭게 민선 5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민선 5

기 시작 분위기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서구청 공무원 역시 "지난달 고위직 공무원 3명이 직위해제 된 데 이어 최근 관선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30여명이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청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구청은 서구청 소속 공무원 중 관선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30여명을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감봉과 승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어서 과장이 예상된다.



제15회 여성주간기념 여성화합 한마당 행사가 7일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렸다. 참가여성들이 각 구를 대표하는 갖가지 색상의 옷을 입고 흥겹게 울동을 펼치고 있다.

강운태 드라이브에 시청 공무원들 '헉헉'

현장 방문·국비 확보 연일 강행군...100대 실천과제 만들기 야근·주말근무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1일 취임 이후 전동시장 등 민생현장 방문,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및 정부부처 방문, 신규 정책 및 사업 발표 등 연일 백백한 일정으로 '강행군'에 나서고 있다.

강 시장은 이와는 별도로 각 실·국에 민선 5기 인수위원회가 수립한 5대 목표·30대 전략·100대 실천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은 쏟아지는 각종 정책 및 사업 관련 자료를 만드느라 야근은 물론 주

말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으나 좀처럼 강 시장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직 '적응기'인 데다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강 시장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100대 실천과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선 5기 인수위원회 소속 인수·자문위원들과 각 실·국별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달 내로 시행이 가능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어 실천과제를

수립한 인수·자문위원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들 과제 중 일부는 법적·제도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어 검토하는 데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6일 남광주시장에서 첫 탁회의를 열기에 앞서 하루 전인 5일 관련 실·과 직원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지시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속도'에 직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또 민생현장 방문을 강화하기 위해 강 시

장은 고급승용차 대신 서민 눈높이에 맞는 업무용 승합차를 구입하도록 하는 등 현장과 업무를 동시에 챙기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과도하게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시장 자신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긴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직원들이 처음에는 다소 힘들 것"이라며 "하지만 곧 적응이 되어 시민의 행복과 창조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서구 화정동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여성주간 기념 '여성화합한마당'에 참석해 여성이 행복한 광주시를 이루기 위해 여성기업제품 구매, 여자화장실 변기 추가 설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단지 신축 시 '여성 뜨개방, 공방' 등 신설, 여성친화적 기업에 대한 금융 혜택 확대 등을 약속했다. /유현희기자 chad01@

鄭총리 교체 가닥...개각 폭 커진다

장관 5명 바뀔 듯...청와대 수석도 절반 이상 물갈이

이명박 대통령이 정운찬 총리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개각의 폭도 최소한 중폭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당초 총리는 유임한다는 의중이었으나 정 총리의 사퇴 의지가 워낙 완강해 이를 받아들여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후임 총리에는 쇄신과 세대교체의 이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대통령에게 '고연'을 아끼지 않을 '경륜'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아직까지 유동성이 크다.

개각 시기는 청와대 개편을 마친 뒤 이달 말께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지만 7·28 재보궐 선거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개각 규모는 최소한 5명 이상의 장관이 교체되는 중폭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 인적 개편의 초점을 쇄신과 변화, 소통, 미래 등에 두고 있다

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중용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국민 통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광주·전남출신 인사들을 과감하게 핵심 부처 장관으로 발탁,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 개편은 7일 조직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 주 초반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개편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장 8명의 수석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물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에서 지역 민심과의 소통 창구가 마련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도 인재풀의 한계 등을 이유로 지역 인사들이 중용되지 않는다면 '광주·전남과의 소통 포기'로 읽히면서 지역민들의 반발 등 심각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소통·친서민·미래발전에 중점

靑 조직개편 3대 키워드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제시한 청와대 조직개편은 소통, 친서민, 미래발전이라는 3대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우선 내용면에서 우선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사회통합수석과 국민소통비서관이 신설됐다.

사회통합수석은 산하에 국민통합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민원관리비서관을 두고 일반 국민, 시민사회단체와의 원활한 접촉과 소통을 통해 각계각층의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권 출범 이후 내내 지적됐던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 적극적인 소통 행보로 국정 운영의 틀과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

또한, 사회정책수석의 명칭이 사회복지수석으로 바뀌고 서민정책비서관을 신설한 것은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된다.

각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친서민 정책과 생활 정책을 사회복지수석과 서민정책비서관이 총괄, 서민의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국정기획수석이 폐지되는 대신 주요 기능을 새로 생긴 미래전략기획관과 정책지원관에 분산시킨 점 역시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한 특징이다.

미래전략기획관을 신설하고 교육과학 문화수석 아래에 있던 과학기술비서관을 산하로 옮겨온 것은 미래 성장동력 마련과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동욱기자 tuim@

2010 Gwangju VENICE GLASS FANTASIA exhibition poster. Includes dates 2010.6.19(토) ~ 8.22(월) and location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관(구 광주시립미술관). Features images of glass art and a colorful horse sculpture.